



하늘나라비밀번호 _시편 100:1-5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 핸드폰, 이메일, 심지어 집 현관문까지 숫자나 문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늘나라에도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비밀번호는 바로 두 글자,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이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_시100: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은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감사의 근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 _시100:3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3. 기쁨으로 찬양하라 _시100:1-2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어말로 하늘 문을 여는 참된 열쇠입니다.

4. 영원한 감사의 이유 _시100:5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비밀번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회묵하라 살전 5:13



주석

가정예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령

다 같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

이는 성령으로 임하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히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나 이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다 같 이

1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운겨울 오기 전 열려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오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2 이 세상은 발이요 주는 씨를 뿌리니 좋은 곡식 싹 날때 가리지고 나도다

싸과 앞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3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가뭄 들이고 밭에있는 나쁜것 모두 소멸 하실 때

가리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여 두시리

4 주여어서 오셔서 우리거뒀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천사 아울러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성 시 교 독

106번 감사절(2)

다 같 이

인도자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이를 담고 마땅하도다.

가 : 주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가 : 주 : 그가 벌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가 : 주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인도자 :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이다.

가 : 주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줄 것을 주시는도다.

가 : 주 : 여호와는 만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까지 깨닫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버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 경 말 씀

시편 100:1-5

설 교 자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니 찬송을 할지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5. 여호와를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설

교

하늘나라 비밀번호

설 교 자

기

도

설 교 자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묻쳐있고 기쁨과 실용도 같이하니 한강의 초기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복성으로 축복 받으시라